

## 회상의 명화선

무성영화 — 「선라이즈sunrise」 (1927)

우선 먼저 두 개의 자막이 나온다. 하나는 이것은 남자와 그의 아내를 노래한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인생 — 태양이 오르고 기울어지는 곳, 도시 전원의 구별 없이 평등한 인생,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달콤하고 서러운 것은 인생이라는 뜻이 세워져 있다.

휴가의 계절. 어떤 호숫가에 있는 벽촌의 빈약한 선창가에 아름다운 도시의 여자(마거릿 리빙스턴)가 나타났다. 그의 풍만한 육체 세련된 미모와 태도에 씩씩하고 거기에 순정한 시골 사나이(조지 오브라이언)가 순식간에 정신을 팔고 만다.

그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아름다운 정숙한 아내(자네트 게이너)와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애도 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알지 못하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언제나 웃으며 살아오는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여자’가 온 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집과 배는 모두 고리대금업자의 담보로 되고 말았다.

오늘도 남자는 여자와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갔다. 대지를 덮는 연기와 같은 안개, 갈대밭 아래에 물결치는 호수(하리 올리버의 세트, 로서 스트라스의 카메라의 훌륭한 기술의 협화로서 성공한 이동촬영은 현실의 세계처럼은 생각되지 않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시각에 호소하며 그 비류가 없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관능의 황홀에 취해 빠지고 여자는 남자를 도시에 유혹하고 그에게 아내를 살해할 것을 권유한다.

호숫가의 맨 가운데, 아내를 떨어뜨리려고 남자의 눈은 악마와 같이 번쩍 거린다. 아내를 쳐다보는 눈, 미소에서 우울로 공포에 움직이는 아내의 얼굴, 물, 노, 남편의 눈, 아내의 얼굴이 차차 급격하게 커트백되는 클로즈업에 의하여 화면에 나타난다. 사일런트 말기의 심리묘사에 있어서 거의 최고의 커팅의 전형일 것이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그는 아내를 죽이지 못한다. 대안(對岸)에 머물렀을 때 아내는 그가 무서워서 도망친다. 전차 그리고 거리.

“겁내지 마라!”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번 이야기 했다.

떠들썩한 카페 테리라에서 두 사람은 마음에 없는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공포로 빵도 잘 먹지 못하는 아내 옆에서 미안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다보는 남자의 눈에는 이미 ‘도회의 여자’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때마침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말하는 목사의 말이 남자의 가슴을 찢는다. 회한의 눈물이 얼굴에 흐르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내는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서부터 할리우드적인 코미디 릴리프는 확실히 멜로 드라마화되어 버리고 전반의 서정을 잊어버리고 있다.)

즐겁게 놀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 아내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남자는 밤이 늦어서 혼자 헤엄쳐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하는 것을 본 도회의 여자는 그것이 그의 소행인 줄 알고 아내가 구조되었다는 것을 남자에게 고했다. 지금은 노해 버린 그는 도회의 여자의 목을 비틀어 때밀었다. 하룻밤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 아내. 기도를 계속하는 남편. 얼마 후 밤이 밝아서 빛나는 해가 뜰 때(선라이즈)에 아내는 눈을 뜨고 빙그레 웃었다. 행복은 또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마침 그 무렵 자기의 소행이 어떠한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며 도회의 여자는 혼자서 그 마을을 떠나갔다.

사일런트의 말기 독일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F. W. 무르나우의 최초의 작품이다. ‘다카메라의 눈’의 열렬한 신봉자인 무르나우는 시각에 의하여 스토리를 완전히 이야기할 것을 시험한 순수영화 작가이다. 이 작품의 전반에 나타난 순수성은 할리우드가 만든 사일런트 영화의 최고봉이며 영화가 걸어 나갈 하나의 방향을 시사하고 큰 영향을 주었으나 무르나우는 그 기대를 남긴 채 1931년에 세상을 떠났다.

★원작 - 헬만 주더만, 각색 - 칼 마야, 감독 - F.W.무르나우, 촬영 - 찰스 로서 칼 스트라스(폭스사 작품).

토키시대—「어느 날 밤에 생긴 일It Happened One Night」(1934)

아메리카의 천만장자의 딸 엘리 앤드류스(클라우드 콜베르)는 바람둥이 아버지의 간섭을 물리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비행가인 킹 웨슬리와 약혼을 한다. 몹시 놀란 아버지는 딸에게 설득했으나 엘리는 단식까지 한 후 틈을 보아 요트에서 마이애미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필연코 상금을 걸어서 자기를 찾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통쾌히 생각하면서…….

뉴욕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는 탐정들이 모여들었으므로 엘리는 어떤 노파에게 대신 차표를 사달라고 하고 교묘히 몰래 버스를 탔다. 그때 엘리는 처음으로 피터 워렌(클라크 케이블)과 만난다. 피터는 독신인 신문기자로 친구인 편집장과 싸워서 신문사를 뛰쳐나온 길이었다. 원래부터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이었으나 처음부터 좌석 때문에 운전수와 싸우고 밀

고 들어가 버스가 움직이려고 할 때에 피터의 무릎위에 엘리의 엉덩이가 떨어져도 서로 흘겨보는 사이였다. 이렇게 하여 2000마일의 여행이 시작되었으나 피터는 신문기자의 센스로 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 교만한 태도, 화려한 복장에 피터는 불만을 느꼈으나 그와 반면에 엿볼 수 있는 그의 유기와 천진난만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도중 엘리가 가방을 도난당했을 때, 버스를 늦게 탔었을 때, 싫은 사람한테서 말을 걸렸을 때 그는 어딘지 모르게 엘리를 비호했다.

거기에 엘리가 상금 1만 불의 문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비행가 킹은 엉터리니깐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쓸데없는 충고까지 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킹을 옥했다. 비가 와서 다리가 무너져 두 사람은 조그마한 바라크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제리코의 성벽이라고 말하고 모포로 침대를 막았다. 조아하고 염치없는 남자였으나 세상에서는 무엇이 존중한가를 점점 알려주는 믿음직한 그에게 엘리는 참다운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킹과의 결혼을 승낙하고 엘리는 뉴욕에 도착했다. 그러나 엘리는 즐겁지가 않았다. 피터는 자기를 싫어하고 있다. 거기에 아버지한테 엘리에 관한 경제적 문제로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킹과 결혼한 것을 결심했다. 그 결혼의 당일,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피터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1만 불의 상금 대신 엘리를 태워 보내준 자동차의 가솔린을 사기 위해 판 외투와 넥타이의 대금 39불 60센트만을 청구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엘리는 결혼식장을 뛰쳐나가 피터의 가슴 속에 뛰어들었다. 두 사람이 밤을 보낸 그 시골집에서 오늘 밤은 구약성서의 고사(故事)를 본받아 제리코의 성벽을 허물기 위해 장난감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이 영화의 테마는 아메리카 영화에 보통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인공적인 풍속 취미에 떨어지는 일 없이 또 솔직하고 명랑하게 조금도 불유쾌한 기분을 주지 않았던 것은 리스킨의 교묘한 시나리오와 카프라의 유창한 연출의 성과이다.

도회적인 훌륭한 연기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케이블과 콜베르의 연기도 있을 수가 없다. 그 외에 작품, 감독, 시나리오상도 받고 있다.

★원작 - 아서 홈킨스 애덤스, 각본 - 로버트 리스킨, 감독 - 프랭크 카프라, 촬영 - 조 위커(콜롬비아사 작품).

전후작품 — 「자전거 도적Ladri di Biciclette」 (1948)

타이틀백의 이동하는 무브 신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소개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영화가 생활의 시(時)를 생의 자각에 서 있는 커다란 인간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상이 강한 퍼스트 신으로서 우선 성공하고 있다.

직원에게 불리어서 안토니오는 이날 겨우 실업에서 구조되어 광고 포스터를 붙이는 일거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전거가 필요했다. 그것이 없으면 직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전거는 벌써 오래전 생활고로 전당포에 들어가 있다(이것은 전작 「구두땀」에서 ‘딸’이 어린애들의 꿈이며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것처럼 자전거에서 노동자의 생활의 의욕과 희망의 상징을 찾아보는 훌륭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남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리아넬라 카렐)는 보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베드에서 들어내고 그것과 교환으로 자전거를 전당포에서 찾는다.

이렇게 하여 네 사람의 가정에는 희망의 촉광이 비치기 시작한다. 아내는 점쟁이 여자한테 사례를 하러 가겠다고 하나 남편은 점쟁이 때문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후에 자전거를 잃어버린 안토니오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피로해서 또다시 들르는 의미 깊은 복선이다). 여기서부터 다음 날 아침에 걸쳐서 데 시카의 속으로부터의 눈은 참으로 투명하며 괴로운 생활 속에 있는 인간적인 따스함과 깊이를 한 과장도 없이 묘사해 나간다.

이 일각의 즐거움도 눈 깜짝할 사이 안토니오가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동안에 자전거를 도난당한다. 경찰에 가도 상대도 해주지 않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자전거 시장을 찾았으나 소용없었다. 실망…… 고뇌…… 노여움의 미묘한 심정이 안토니오의 표정에 확실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 브루노(안토니 스타줄라)는 죽어라고 자전거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맨다. 영화의 대부분은 이 묘사로 차고 범인을 아는 거지노인을 따라 교회에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생각으로 점쟁이 여자에게 창굴로 겨우 범인을 잡으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 한패들로부터 위해를 받을 뻔했다. 노인을 따르는 경과 묘사는 부자 간의 절실한 애정을 그리고, 브루노의 귀여운 유머러스한 연기와 안토니오의 어른으로서의 절박한 연기와 콘트라스트는 관객심리의 완벽한 과약으로 되어 작품의 흐름에 깊은 인간미를 가하는 데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남의 자전거를 훔치려고 한다. 이 전후 풋볼 경기장의 환성, 길가에 정신없이 쓸쓸하게 앉아 있는 아버지와 아들, 경기장의 자전거 정류

장, 부자 앞에 오고가고 하는 자전거 돌아가는 차륜의 클로즈업, 흠치려고 그 거취에 고민하는 안토니오의 표정, 어린애의 피로한 얼굴색. 이러한 것이 훌륭한 효과적인 몇 코마와 편집에 의하여 클라이맥스의 감격적인 신을 제출한다. 흠친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나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잡히고 만다. 굴욕, 회한, 상심, 자살, 그 아버지를 짝 옆에 기대서서 쳐다보는 브루노의 얼굴. 뺨에 눈물이 흐르는 아버지의 얼굴. 아들의 손을 잡는 아버지의 손. 그것을 다시 잡는 아들의 손 — 벌써 보는 사람은 화면의 주인공 자신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은 참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눈물이다.— 아마도 그들 두 사람은 자전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자전거가 없는 내일부터의 생활은…… 어두움이 다가오는 로마의 거리에 많은 사람의 파도 속으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간다.

★각색 - 체브레 사바티니카 5명, 감독 - 비토리오 데 시카, 촬영 - 카르모 몬트리, 음악 - 알렉산드로 코니니(BINO사 작품).

— 『아리랑』 (1956.3)